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62.23	↑ 코스닥	847.49
	(+37.29)		(+6.68)
↓ 금리 (미국 9년)	3.115	↓ 환율 (원/달러)	1380.30
	(-0.013)		(-0.10)

유통업계 허리띠 졸라매  
SSG닷컴·롯데쇼핑 등  
희망퇴직 단행 02



## AI 등 미래사업에 우호증진까지 재계 총수들 '글로벌 비전' 실현

재계 총수들이 세계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국가간 우호 증진을 위해 힘쓰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핵심 사업 점검을 위해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제안한 튀르키예 앙카라에 있는 '한국공원' 개선 프로젝트가 마무리,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SK라이프 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으로, 최 회장은 뇌전증 혁신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XCOPRI)의 미국 직판 상황을 점검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총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뇌전증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신약이다. SK바이오팜은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표적단백질분해제(TPD)의 핵심기술 보유사인 SK라이프 사이언스랩스(구 프로테오반트)를 지난해 인수한 뒤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이 국가안보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 방문 후 최 회장은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위치한 애플리크를 찾아 세계 최초 글라스 기관 양산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살폈다. 애플리크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관 사업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애플리크는 세계 최초로 글라스 기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글라스 기관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반기 중 고



최태원 회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에 위치한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바이오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SK



지난달 '6·25 전쟁 74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한 한-튀르키예 주요 인사들이 한국공원 내 한국식 정자인 '우정의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최태원 SK그룹 회장**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 찾아 세노바메이트 직판상황 점검 빅테크 CEO들 잇따라 회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튀르키예 한국공원 새단장 한국전 참전 용사 희생 기려

객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 회장은 출장 중 만난 빅테크 CEO들에게도 글라스 기관의 기술 경쟁력을 소개했다.

지난달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 회장은 앞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CEO 등을 잇따라 만나며 IT 소프트웨어 파워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의 한국공원도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탄생했다. 1만㎡ 규모의 한국공원 공원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 건국 50주년인 지난 1973년 조성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한국공원을 찾은 뒤 개선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후 지난해 9월 프로젝트에 착수해 10개월 간 개선 프로젝트를 벌였다.

공원에는 불국사 석가탑을 본떠 만든 '한국전쟁참전기념탑'이 있으며, 탑을 떠받친 지대부 벽면에는 전사자 72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탑을 중심으로 기와 지붕을 얹은 관리실과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이 설치돼 있으나, 개장 5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공

원의 상징인 참전기념탑은 그대로 두고 상단부 오염 및 번색 부위 세척, 하부 채도색 및 기단부 파손 부위에 대한 석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양국 국기가 그려진 공원 담장과 벤치 및 캐노피 등 휴게시설도 새로 단장했다.

쉽게 갈라지거나 파손이 발생했던 기존 공원 바닥 포장도 고급스럽고 내구성 높은 대리석으로 전면 교체했다. 노후한 관리실은 한국식 한옥 건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새 단장을 마친 한국공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전쟁 74주년 추모행사'를 계기로 문을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튀르키예 정부 인사와 시민들은 '한국의 미(美)'를 보여주는 정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등 개선 프로젝트 후 청결하고 아름다워진 공원 시설을 높이 평가했다.

/양성운·김서현 기자 ysw@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서울대 제외 38개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 발생

19개대 100% 모두 포기 의료교육 수준저하 우려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입시에서 기존 정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가합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쏠림' 심화 외에도 의료교육의 전반적 수준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은 1658명, 추가 합격 규모는 167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추가 합격은 최초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정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순위 성적자에게 순서대로 등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의대에서 모두 '등록포기자'가 발생하며 추가 합격자가 생겼다. 수시 최초합격자 100%가 모두 등록을 포기한 의대로 19곳에 달했다. 일부 대학은 의대 정원의 2~3배까지 추가합격자로 정원을 채웠다.

이때문에 지방이나 중하위권 의대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렸지만 의학교육의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대통령실, '김여사 문자 논란'에 "전대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 ▲ 나경원, '김건희 문자·연판장' 공방에 "원·한 덩어리 보여" /사진 뉴스스

- ▲ 한총리, 경제선지능 청년 격려 "조금 느려도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회로"
- ▲ 이언주, 최고위원 출마선언... "비상시 국 선봉에서 민주당 집권 길 열것"



-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조국 보복' 프레임 씌우지 말라" /사진 뉴스스
- ▲ 파리올림픽 안전 사수... 정부, 현지 임시영사사무소 설치

# 유통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SSG닷컴 등 희망퇴직 시행

업계, 글로벌 경기침체 타격  
임원 급여 삭감 등 대응 나서  
“당분간 ‘몸집 줄이기’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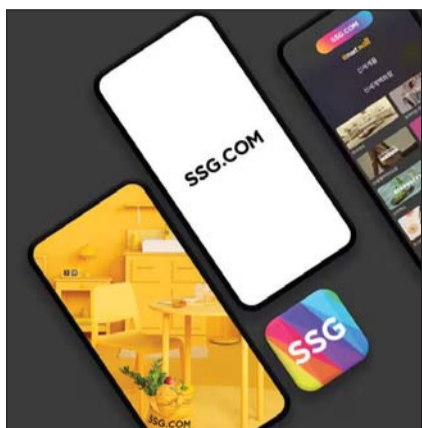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국내 유통업계가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e커머스 업계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나선 것. 일각에선 당분간 이같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SG도 첫 희망퇴직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이 지난 5일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최후학 SSG닷컴 대표는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5일부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SSG닷컴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마트에서 물적분할 때 법인이 설립한 이래 첫 희망퇴직이다. 신세계 그룹 이커머스 계열의 첫 희망퇴직이기도 하다.

희망퇴직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입사한 근속 기간 2년 이상의 본사 직원이며, 대상자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치



SSG닷컴 대표 이미지 /SSG

월급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업 중인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본인 희망 시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며 퇴직일자 는 이달 31일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e커머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 개개인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의 희망퇴직은 지난달 SSG닷컴에 새로 취임한 최후학 대표의 첫 행보라 더욱 주목된다. 이에 업계에선 G

마켓도 희망퇴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SSG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유통업계도 이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지난달 롯데쇼핑의 온라인 사업 부문인 롯데온은 근속 3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3월까지 두 차례나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가 올해 1분기 말 1993년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해 업계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마트에 흡수합병된 이마트에브리데이도 비상경영을 강조하며 조직 효율화 및 쇄신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희망 퇴직은 면세점 업계로도 번졌다.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임원 급여 20% 삭감과 함께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등의 싸이커머스 기업의 공략에 국내 유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몸집줄이기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전국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尹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대응 등 글로벌 공조 도모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경고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를 도모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에 앞서 8~9일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 참배, 하와이 동포 만찬간담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한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으로, 나토 측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속한 인

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Indo-Pacific 4) 국가들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스톡홀름 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세 양자 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

11일에는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

## 국제 금 가격 재상승... 2400달러 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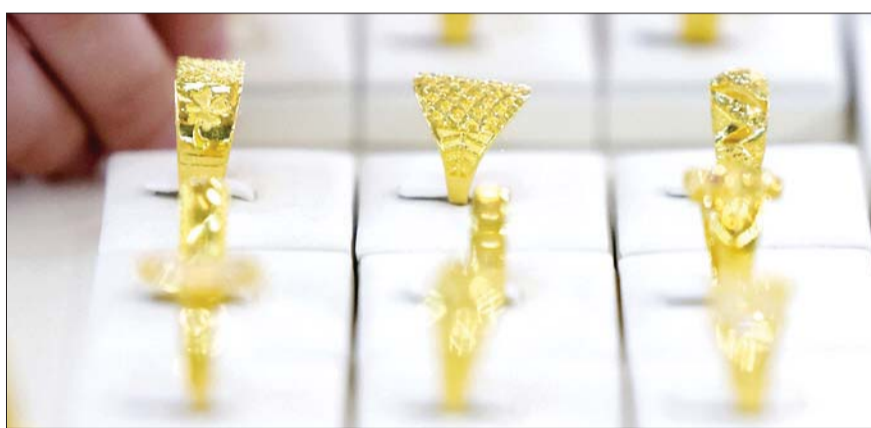
美 조기 금리인하 전망 확산  
전문가들 “당분간 강세 이어갈 것”

최근 한 달 동안 온스 당 230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던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해 24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 미국 고용 시장이 냉각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스당 2397.7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28.30달러(1.19%) 오른 수준으로, 금 가격이 2400달러를 넘겼던 5월 21일 이후 최고치다. 또한 금 가격은 직전 거래일(3일)에도 36달러(1.54%) 상승해,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미 노동부가 앞서 발표한 4~5월 고용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노동시장 냉각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초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이었던 금 가격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2200달러를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 중인 금 제품. /뉴시스

돌파한 금 가격은 5월 20일에는 2438.5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6월 들어 미국의 고용률 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으로 금 가격은 2300달러대 초반에 가격대를 형성했고, 7월 초까지 안정적인 가격 변동을 보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20만 6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20만 건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은 16만 5000명에서 10만 8000명으로,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2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장에선 고용시장 냉각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왔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77.7%로 전망했다. 일주일 전 전망치였던 64.2%에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금융 컨설팅 업체인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의 제이슨 쉐커 회장은 “달러 약세에 따라 금 가격이 상승했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준의 금리인하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등은 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혼자사는 중장년... 1인가구 67% ‘40대 이상’

비혼·이혼 증가 등 영향... 60대 최다

비혼과 이혼 건수, 독거노인 등의 증가에 따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40세 이상이 국내 전체 1인 가구의 2/3를 차지했다.

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1007만 개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해 177만 개 증가했다. 2019년 시작된 총인구 감소와 상반되는 흐름이다.

1인 가구 세대주 1007만 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8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69만 명)와

50대(164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40대, 70대도 각각 100만 명이상이었다. 특히,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시 40세 이상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 수가 68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체 1인 가구의 67.5%로, 2/3를 넘는다. 이 중 80대와 90대도 각각 75만 명, 12만 명을 기록했다.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 속 독거노인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6만 명으로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01만 명), 부산(65만 명), 경남(63만 명), 경북(59만 명), 인천(52만 명) 순으로 많았다. 세종이 5만 6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일부 대학, 정원 2~3배 추가합격자로 채워

>> 1면 ‘서울대 제외 38개...’서 계속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장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교육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수준까지 거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대 합격선 하향추세에 더해 60% 이상의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의대교육

의 결과물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정부가) 먼저 밝혀야 한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평원을 압박해 부당한 의대 증원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ihj@

# “시총 45조 목표… 헬스케어로 글로벌 빅파마 꿈꾼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 ⑦ 통합 셀트리온의 시대

지난해 12월28일,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던 셀트리온과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한 통합 법인이다. 2024년 1월1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통합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지난 4일 40조3173억원을 기록, 코스피 시장 8위에 올라 있다.

셀트리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셀트리온제약까지 모두 합병하는 그룹 대통합 작업에 나선다. 3사가 모두 합병할 경우 시가총액 45조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그룹이 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빅파마를 향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꿈은 이제 시작됐다.

### ◆짐펜트라, 통합 셀트리온 ‘첨병’… 시총 45조 거대 기업 예고

통합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것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30년까지 1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 셀트리온의 첫 해 매출 목표는 3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그룹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 회장은 “내년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의 미국 출시를 통해 3조5000억원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본격 출시됐다. 서 회장은 미국 영업 현장 최일선에서 짐펜트라의 직접판매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짐펜트라 한 품목으로만 미국에서 내년 2조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 자리에서 서 회장은 화상으로 등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짐펜트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짐펜트라가 개시돼 사용하는 병원이 2800개, 처방의사는 7500명에 이른다”고 소식을 전했다.

셀트리온은 다수의 미국 처방약급여 관리업체(PBM)들로부터 보험 환급이 지난달부터 본격 개시되면서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ESI 등 PBM을 통해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약 40% 규모의 커버리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되는 다수의 PBM을 비롯, 대형 PBM과의 계약 추가 등을 감안할 경우 짐펜트라의 매출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짐펜트라가 주력하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IBD) 시장 규모는 12조80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은 우선 2025년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영업 활동의 결



헬스케어 합병으로 시총 40조, 코스피 8위 올라  
美·유럽 글로벌 공략… 2030년 매출 12조 목표  
3사 합병, 시가총액 45조 바이오 그룹 탄생 예고  
美 짐펜트라 홍보 주력… 사용 병원 2800개 달해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보  
韓, 바이오·제약 산업서 주요국 자리매김 되길 바래

실로 정맥주사(IV)제형에서 SC제형으로의 전환율이나 등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매출 가속화의 토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2조원 이상의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짐펜트라 매출이 본격 확대되면서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통합 셀트리온은 73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 성장한 규모다. 2분기 역시 77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가 전망한 실적 평균에 따르면 통합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3조5292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무난히 넘긴다.

### ◆韓 바이오시밀러 위상 높이는 게 목표… 이미 ‘퍼스트 무버’ 췌차기 시작

서정진 회장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당시 오는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22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셀트리온은 주요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와 램시마SC의 합산 점유율은 67%로 2022년 평균 점유율 대비 8%포인트 올랐다. 유럽 주요 5개국 기준 램시마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후속 파이프라인도 빠르게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 1월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유플

라이마 80mg이 미국에서 출시됐다.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시장 매출만 24조원, 글로벌 매출 26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블록버스터로 꼽힌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80mg에 이어 40mg의 동일한 고농도 제형과 소아 환자를 위한 20mg 제형도 잇달아 선보이며 맞춤형 마케팅으로 전략을 차별화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1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CHMP의 승인 권고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옵리클로’가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지위를 확보했다. 졸레어는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했다.

5월 말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아이텐젤트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품목허가 절차를 진

행 중이다.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2조원을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다.

이와 함께 현재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와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키투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역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 상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 역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을 글로벌 빅파마로 키워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 산업 하나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과 함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만큼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짐펜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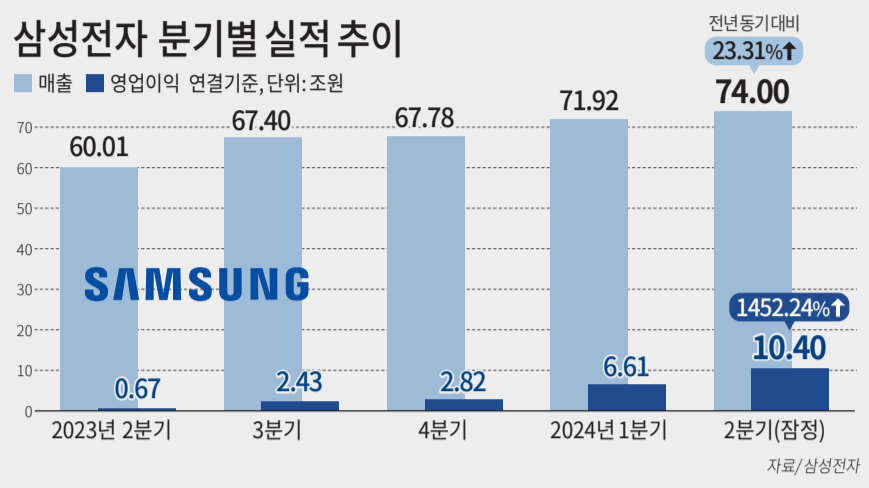
# HBM 등 AI 경쟁력 주효... 하반기 10조원대 영업익 청신호

## 삼성전자 깜짝실적 배경은

2분기 매출 74조, 영업익 10.4조  
일부 제품 연말까지 물량 완판  
증권가, 주가 목표치 상향조정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10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전자의 '깜짝실적'은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74조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10조852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특히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8조2288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보다 약 2조원 많은 영업이

익을 낸 것. 삼성전자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는 AI 열풍으로 메모리 시장이 회복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AI용 서버의 핵심 부품인 D램 가격과 낸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된 데 이어 고부가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HBM은 AI반도체의 구동을 돕는 핵심부품이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

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과 가격은 13~18% 상승했다. D램 시장에서 HBM 매출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말 2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3%, 35%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이 밖에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SSD) 가격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재고자산평가손실 총당금은 1조원 이상 환입됐다.

이에 증권가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4조~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호실적으로 DS부문에서만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10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력 메모리 일부 제품은 수요가 몰리

면서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서버 교체가 잦은 시기이기 때문에 완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7900억원, 4분기는 12조74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가도 삼성전자의 주가 추경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했다. B NK(9만3000원→10만2000원)와 하나증권(10만6000원→11만7000원)도 목표 주가를 높였다.

NH투자증권 류영호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사이클 수혜 강도 상승과 HBM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받았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결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물량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사의 매력 증가도 기대 돼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비트코인, 4개월만에 최저... "단기조정시 4.7만弗 가능성"

## 美 금리정책, 獨 매각 등 영향 "상승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5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하락세는 마운트곡스 상황과 미 연준의 금리정책,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7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5만36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월26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500만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20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지난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당시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마운트곡스(마곡)가 상황을 시작했다.

마운트곡스 파산 관재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14만2000개 약 90억달러(약 12조)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상환 받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기존 투자자들 역시 매도세로 전환돼 대규모 급락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사록에서 매과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기조가 유지된 것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6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2% 목표를 향해 지

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즉,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게 된다.

독일 정부도 지난달에 이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카에 따르면 지난 4일 독일 정부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bc1q~)에서 비트스탑프,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으로 각각 비트코인 500개, 400개, 400개가 전송됐다. 총

10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7일까지도 비트코인 3641개(3000억원 규모)를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로 전송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옮기는 것은 잠재적 매도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연일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기영 크립토크트 대표 X(구 트위터)를 통해 "단기 조정은 최대 4만7000달러까지 열려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 투자자라면 내년 초순순까지 보유하는 것을 추천하며,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쉬는 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 [www.yyg.go.kr](http://www.yyg.go.kr)

# [ 평생토록! ]

요람에서 노후까지~  
1인당 최대 **1억 4,405만원** 지원!

환영받으며 태어나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건강하게 익어갑니다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하는  
영양군  
누구나 행복한  
초고령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양군 생애주기별 38대 지원시스템**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급여·보육비 지원
-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교육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위생용품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향토생활관·영양학사 운영
- 마음건강 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창업 지원
- 근로자 지원
- 전입축하금
- 주택임차료 지원
-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결혼장려금 지원
- 결혼비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 임신제·출분제 지원
- 군민안전보험
- 각종 진료비 감면
- 농사 시설 확충 지원
- 농기계 구입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건강검진비 지원
-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치매치료비 지원
- 군민안전보험
-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국회 정상화 '깜깜'

野 주도 순직해병 특검법안 처리에 與 개원식 불참 선언... 무기한 연기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 관측 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

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 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 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이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야가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

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야당 주도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오늘 예정되었던 개원식도 연기됐다. /뉴시스

## 與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에 점입가경

韓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갈등 해당 이슈 두고 당심 선택 '주목' 진흥당 싸움에 당 분열 우려 제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의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들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 당 대표 후보들이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

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진윤(진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흥당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공영방송에 정권 영향력 강화" vs "절차 따른 수순일 뿐"

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을 지명한 것을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M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YTN 민영화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을 발의해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계와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가가 뭐라 하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

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이라크 전 당시 최초의 여성 중군기자로 활약하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MBC 재직 중 'MBC 민영화·노조 탄압 의혹'·'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이 있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전 사장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7일 <메트로경

제신문>과의 통화에서 "MBC 이사진 교체와 그다음 사장 교체는 정권 입장에서 방통위에 대한 당면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직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민하 평론가는 '벌떼야구'를 언급했다. 투수(방통위원장)들이 타자(야당) 한 명씩 상대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신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절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이 8월 중순(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방

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경우, 5~6개월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이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법법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를 계속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http://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롯데카드, 車 할부금융 나홀로 성장… 하반기도 ‘풀액셀’

자동차 할부 상품 수익 68억  
경쟁사 대비 금리 상단 낮춰  
작년 동기 대비 142.5% 급증

오토큐레이션 서비스 추가 등  
편의성 높여 경쟁력 강화 주력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금리상승 여파에 카드사 자동차 할부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했지만 홀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롯데카드가 자동차 할부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7억88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27억9900만원) 대비 142.5%(39억8900만원) 급증했다. 카드업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신한카드(30억4000만원)와 KB국민카드(21억8500만원)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 취급량은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6472억 1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

연간 77.96%(2835억4000만원)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동차 할부 자산이 5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롯데카드는 저금리를 앞세워 자동차 할부 상품 영업에 강화했다. 현재 롯데카드의 ‘오토할부’ 상품은 신차 구매 시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출 금리 상단은 연 5.9%다. 경쟁사 대비 금리 상단이 낮다.

최근 카드업계는 자동차 할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3년 1

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사업 확대 행보에 카드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지난 1분기 카드사 6곳(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9조5224억1800만원으로 전년(10조3723억6600만원) 대비 8499억4800만원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 자동차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여전히 금리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달비용이 커진 탓에 금리 경쟁력이 떨어

어졌다는 것.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은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모두 취급하고 있다. 그간 ‘자동차 할부 구매는 카드사’란 공식이 성립했던 이유도 카드사가 타 업체 대비 낮은 금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할부营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달 롯데카드는 자사 플랫폼인 디지로카앱에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를 추가했다.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에게 신차 구매와 렌터카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중계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환승오토카드할부’ 서비스는 신차를 구매하고 할부 기간이 끝나면 차량 반납 후 또다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금리 경쟁력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리 경쟁력을 유지할 예정이다”라며 “당초 취급 잔액이 타사 대비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DB손해보험

## 네이버와 손잡고 UBI 특약상품 출시

DB손해보험이 안전운전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 ◆ 업계 최초 네이버와 UBI 특약 상품 출시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업계 최초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다. 운전 습관을 분석하고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 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운전 데이터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화생명

## ESG 경영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화생명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 ◆ ‘그린라이프 2030’ 중장기 목표

한화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향후 전략방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그린라이프 2030’을 중장기 전략 목표로 삼는다. 보고서는 ①환경보호와 친환경 경영 내재화 ②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경영 ③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중점에 뒀다. 환경경영 성과로는 E-순환거버넌스 자원순환 MOU 체결 및 환경부장관상 수상을 통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소개했다.

### 롯데손해보험

## 종합암보험 출시 1년 가입건수 10만건 돌파

롯데손해보험이 암보험 가입 10만건을 돌파했다.

### ◆ 전이·재발 등 암 특성 고려해 고객 수요 충족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판매한 ‘let:smile 종합암보험(88)’과 ‘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의 누적 가입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상품이 최초 출시된 지 12개월만의 성과다. 전이·재발이 쉬운 암의 병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 경쟁력과 함께 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김주형 기자 gh471@

## 달라진 분양가 눈높이… 서울 ‘국평’ 12억도 싸다?

장위동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등  
입주권 12억 이상에도 무리없이 소화

분양가를 판단하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서울 강북에서 ‘국립평형(전용 84㎡)’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섰으며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비슷한 가격에 경기도 성남으로도 청약이 몰리면서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난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에 이어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뉴타운(장위제정비축지구) 6구역을 재개

발하는 사업이다. 지상 33층, 15개 동으로 총 1637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718가구다.

입지는 초역세권이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선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 등으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7만원 인편이다. 지난해 청약에 나섰던 경기도 성남시 ‘산성역 헤리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최고 10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 마감됐다.

평형별로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

가 9억6799만원, 전용 84㎡가 12억 1100만원이다. 당초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최근 서울의 집값이 들쭉거리면서 키맛추기가 이뤄졌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입주권이 전용 84㎡가 지난달 12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가 10억2300만원이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됐던 장위4구역도 지금은 입주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며 “평당 3500만원선은 성남에서도 무리없이 소화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신축으로는 장위 7구역으로 지

난 2022년 말에 입주한 ‘꿈의숲 아이파크’의 전용 84㎡가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장위 5구역을 재개발해 2019년 입주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는 전용 84㎡가 10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우리銀, 42개 중견기업 최대 300억 지원

‘라이징 리더스 300’ 3기 선정  
최대 1.0% 금리 우대 등 혜택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3기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 3기 선정은 지난 4월 중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우리은행의 사전한도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2개사는 우리은행을 통하여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혜택 외에도 ▲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 ESG 대응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기의 경우 최종 선정 대상은 1기(2023년 상반기) 38개사, 2기(2023년 하반기) 34개사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이는 자금수요 니즈를 바탕으로 한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Rising Leaders 300’ 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어르신들이 수협은행이 영업점 내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 Sh수협銀,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마련

Sh수협은행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Sh수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폭염 사고 예방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 수협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시원한 생수와 냉방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



# 완성차업계, 임단협 갈등 고조 현대차·한국지엠 등 파업 기로

현대차 노사, 집중교섭 돌입  
파업 현실화 시 車산업 전반 영향  
“노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놓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만형적인 현대차 노동조합(노조)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11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식 요구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진행된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15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 ▲주식 총 25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 같은 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지만 회사와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면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2일 첫 상견례를 가졌던 기아도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금요일 4시간 근무제,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던 것처럼 기아 역시 비슷한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 출생에 따른 경조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자녀 출생 경조금은 기존 100만원(셋째 500만원)이었지만 노조는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

엠 노조도 기본급 상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책임선임 신설 및 수당 8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지난 2014~2018년 까지 5년간 29만여 대에 달하는 생산차질을 겪은 바 있다. 현대차의 노사갈등 극심했던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각각 24일간 파업이 이뤄졌다. 해당 기간 진행된 파업으로 2016년 14만2000대, 2017년 8만900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손실 발생액은 각각 약 3조1000억원과 1조8900억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고양’ 콘텐츠 리뉴얼

‘4D 라이드’ 재오픈... “미래비전 공유”

현대자동차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대표 콘텐츠인 ‘4D 라이드’가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7년 처음 선보인 4D 라이드는 극한의 자동차 경주인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션 기체에 탑승해 실제 랠리를 주행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체험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다.

이번에 리뉴얼된 4D 라이드는 ‘더미션, 모빌리티 히어로즈’라는 주제로 로보틱스 등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됐다. 모션 기체에 탑승해 다양한 모빌리티와 힘을 합쳐 재난 속 인류와 동물들을 구조하는 스토리로, 글로벌 최신 4D 장비와 기술로 생동감을 더했다.

곡선으로 이뤄진 초대형 돔형 LED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4D 라이드 메인쇼 공간 전경

스크린, 6축 모션 플랫폼, 열,바람,물,향,연기 등 다채로운 4D 특수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뛰어넘는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4D 라이드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접목해 리뉴얼했다”며 “실감나는 미래 모빌리티 체험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 ‘AA’

탄소 배출저감 노력 등 긍정적 평가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선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MSCI ESG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AA등급부터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리더그룹으로 통용되며 이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고 수준이다.

MSCI ESG 평가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7개 등급(AAA-AA-A-BBB-BB-B-CCC)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금융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 특히 AA등급부터는 MSCI가 운용하는 다

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되거나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1년 BBB 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다 이번에 환경,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체 등급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 SK이노베이션은 ▲탄소 배출저감 노력 ▲유해물질·폐기물 관리 ▲환경경영 시스템 ▲기업윤리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 김용수 ESG 추진담당은 “MSCI ESG AA등급 획득은 단순한 평가 상향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ESG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철강업계, 침수 등 장마철 안전사고 대응 총력

풍수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배수로·차수벽 등 시설 점검 분주

국내 철강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생산 제품 및 연료와 원료의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이 폭우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중 강수량의 30%가 6~7월 장마철에 집중돼 있어 해당 기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마철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이 연약화돼 축대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높은 습도로 전기전도도가 상승해 감전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강풍으로 인해 자재가 낙하하거나 작업자가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도 높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화재와 침수 피해를 본 바 있다.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대부분 지역이 침수돼 전체 3개 고로 중 제3고로를 제외한 2개 고로가 가동중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매출감소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현대제철 또한 폭우의 영향을 받아 경북 포항공장의 봉형강 및 중기 제품 제조 생산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곽에 설치된 차수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풍수해 대비 냉천 제방둑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

재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하천제방둑과 차수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정전도 대비했다. 점검 중 나온 개선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유사 시 작업장 소장단위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제철소 내 취약 개소와 위험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안전한 제철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10~21일 당진, 인천, 포항, 순천 등 전 사업장에서 점검을 마치고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각 사업장 침수에 대비해 수증펌프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를 이동 배치하고 누수 및 절연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상태를 지속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풍수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27일 각 사업장에 공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우천 시 옥외작업금지, 강풍 대비 부두 측 시설물 관리 강화, 공장 출입문·창문 관리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침수피해 예방 구간을 점검하는 등 장마 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강업계는 1500도가 넘는 고로와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현장 안전을 위해 폭염기간 특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BMW코리아, 샵 온라인 한정 에디션 출시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등 3종

BMW 코리아가 오는 9일 오후 3시 BMW 샵 온라인을 통해 7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

7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강력한 성능 및 스포티한 내외관을 강조한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C(스포츠액티비티쿠퍼) ‘X2 M35i xDrive 퍼스트 에디션’과 ‘X5 xDrive50e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이달 중 판매한다.

BMW X2 M35i xDrive 퍼스트 에디션은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C 뉴 X2 M35i xDrive의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 판매 모델이다.



BMW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BMW X5 xDrive50e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한정 판매 모델로 지난 3월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처음 선보인 바 있다.

BMW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은 순수전기 SAV 모델 iX3에 다양한 M 퍼포먼스 파츠를 장착한 한정 판매 모델이다.

/양성운 기자

# “디카·CD플레이어”… Z세대, 20년전 레트로에 폭 빠졌다

‘빈티지 카메라·뉴트로’ 유행에  
2000년대 라디오 등 제품 등장  
“옛날 기기 감성 따라갈 수 없어”

Z세대들의 환호에 철지난 전자제품들이 돌아오고 있다.

신제품 보다 2000년대 초반 나온 100만~3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와 CD플레이어 등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제품이 인기를 누리면서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선보인 디지털 카메라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래된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시 중구 세운대림상가는 최근 디지털 카메라와 CD 플레이어를 구입하려는 20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일부 기종은 찾는 이들이 늘면서 연락처를 남겨두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방문객이 늘며 아예 일부 상인들은 100만~300만 화소대의 2000년대 발매 디지털 카메라를 모아 ‘빈티지 카메라’ 또는 ‘Y2K 카메라’로 판매하고 있다. 방문한 소비자들도 꼭 작동 여부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상인들의 증언이다. 특히 20대들이 찾는 제품은 카메라 마니아들이 찾는 전문가용 카메라



서울 종로구 장사동 한 전자제품 판매상가에 진열된 ‘빈티지 카메라’들의 모습. 2000~2010년 전후로 발매된 카메라들로 20대들d에게 10만원 전후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DSLR)이 아닌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다. 대략 300만 화소 전후의 제품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세운대림상가에서 구형 라디오와 CD플레이어 등을 판매 중인 김정모 씨는 “라디오는 종종 판매되곤 했는데 카메라는 요즘 갑작스럽게 인기를 끄는 품목”이라며 “인테리어로 쓰려는지 들으려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로선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남대문 일대에서 카메라를 판매하는 장모씨(66)도 최근 유행에 대해 “오래된 전자 기기들도 깨끗하게 관리만 한다면 주인의 손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전자 제품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저 기쁠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CD플레이어는 그동안 아이돌 팬들과 예전 음악 팬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했다. 다만 주로 하이파이(HI-FI)나 빈티지 오디오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됐고,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실제 휴대용 CD플레이어를 경험한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극히 일부 아이돌 팬들 외에는 수요가 없다시피 했다. 전자기업 아이리버 등이 꾸준히 CD플레이어를 출시했으나 휴대용 제품 대신 인테리어를 고려한 제품을 중심으로 출시한 이유다.

휴대용 CD플레이어 인기에도 소형 가전업체인 일우는 최근 상품문의가 물밀 듯 들어오고 있다. 2022년 2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일우의 휴대용 CD플레이어(IW-ET07)에 등록

된 상품 문의의 237개 중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등록된 문의글은 60여 개에 달한다. 작년 한해 등록된 문의 글 78개의 절반을 넘겼다.

뉴트로 유행에 편승한 아이돌 그룹이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도 등장했다. 아이돌그룹 에스파(aespa)는 5월 정규 1집 앨범 ‘Armageddon(아마겟돈)’을 CD플레이어에 CD를 동봉한 형태로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다. 14만 5000원에 달하는 가격이지만 당일 2차분까지 모두 품절 됐다.

X(구 트위터) CD플레이어 앨범을 구입하고 인증한 한 팬은 “비싸지만 일석이조다. 아이돌 팬이 된지 얼마 안돼 CD를 사도 컴퓨터로나 들어야 했는데 너무 좋다”며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밖에도 들고 다니겠다”고 들뜬 기분을 전하기도 했다. CD플레이어 앨범은 아이돌 팬뿐 아니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올린 릴스에서도 100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SNS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에 출시된 파나소닉의 CD플레이어와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이지은(22)씨는 “아이폰이나 DSLR 카메라가 사진이 잘 나오고 예쁜 것은 알지만 옛날 전자기기의 감성은 따라갈 수가 없다”며 “오래됐다고 버리면 환경 파괴지만 잘 사용한다면 새로운 추억이 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카카오모빌리티

### 참여형 가맹택시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별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참여형 가맹택시 모델을 새로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표준화된 서비스 운영 노하우 적용을 위해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된 가맹 본부를 지역별로 분권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가맹 본부에는 지역 내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맹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맹 본부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을 다양한 가맹본부에 개방해 IT(정보 기술)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각 가맹본부 선정은 ▲택시 사업자들의 과의 상생 역량 ▲가맹 사업 운영 전문성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보유 등의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부 사항은 추후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구체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2.8% 수수료의 새로운 가맹택시 상품 운영을 위한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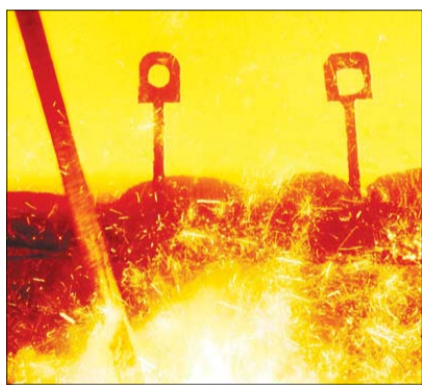
# ‘소음·분진 등 주민 갈등’… YK스틸, 부산 떠나 당진으로

2021년 당진시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 지역주민 피해에 이전 결정  
일각선 일자리 감소 심화 우려도

국내 5위 철강 생산 기업 YK스틸이 부산을 떠난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YK스틸이 회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YK스틸은 2023년 12월 기준 매출액 610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에 직원 수 360여명의 기업이다. 건설 자재인 이형강을 주로 생산하며, 연간 118만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국내 5위 철강회사다.

회사는 지난 2021년 당진시와 ‘당진



철을 녹이는 용광로. /뉴시스

시민 우선채용’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듬해엔 3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및 나노융합 기술 ▲정보통신 ▲디지털 부품 소재 ▲차세대 그린 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가스틸 업종의 사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7대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이다.

YK스틸이 회사이전을 결정하는데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의 영향이 컸다. YK스틸은 지난 1966년 현재의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이후 아파트, 상가, 학교 등의 생활 시설이 공장 근처에 들어섰고, 1990년대부터 공장에 대한 인근 주민들

의 민원이 제기됐다. 소음, 분진, 악취 등의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이다.

결국 YK스틸은 본사와 생산시설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해결되지만, YK스틸과 관계 기업이 부산을 떠나면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살 청년인구는 2040년까지 매년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백대성 기자 iunms@



카카오모빌리티.

## 네이버

### “주변 모임을 한눈에”

네이버 밴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밴드들을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동네 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멤버가 6명 이상인 밴드 리더라면 누구나 동네 밴드로 등록해 이웃 사용자에게 밴드를 편리하게 알릴 수 있다. 동네 밴드 등록 시 소모임, 지역 상점, 단체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밴드 상세 주소를 등록하면 동네 밴드 서비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동네 밴드 서비스를 통해 본인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다양한 밴드들을 살펴보고 가입할 수도 있다.

밴드는 동네 밴드 서비스 출시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를 친구나 지인 등 주변에 공유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가 동네 밴드로 등록될 수 있도록 밴드팀에 요청하면 된다.

/이혜민 기자

# LG전자, 해외 협력사들과 생산성 높인다 LGU+, 통신 제품 中 小 企 기술육성 나선다

인니서 협력사와 생산성 사례 공유

LG전자가 최근 인도네시아 땅그랑과 짜비퐁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에서 해외 진출 협력사 32곳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성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생산 거점 지역 중 하나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에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서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6개 협력사가 생산 및 품질 공정의 개선 사례를

공유했으며, 스마트 팩토리 기술 적용 현황 등을 설명했다.

우수 사례로 소개된 가전부품 협력사는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설비를 원격 조정하는 ‘스마트 컨트롤타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 소요 시간을 1시간 가량 단축했다.

또 인쇄회로기판(PCB)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협력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품질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신규 유사 모델을 개발할 때 빅데이터로 불량 가능성을 확인해 사전 조치한 것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통신3사, 5G 연동 기술 규격 공유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 3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통신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RAPA와 통신 3사는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IoT기술지원센터’에서 사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멘토링을 강화해 IoT 기기의 상용화 검수를 돕는다.

통신 3사는 5G 통신망 연동 기술 규격을 공유하고, 각 통신사의 제품 검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맞춰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제품 검수 시 RAPA의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강봉수 품질혁신센터장(상무)은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빠른 제품 제작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며,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코스피 전망 '맑음'

삼성전자, 전 거래일비 2.96% 올라 SK하이닉스, 2.61% 오른 23.6만원 국내 시가총액 1·2위 주가 상승세에 하반기 코스피 3000~3200선 기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지수 3000선 전망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이미지.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했으며, 코스피도 3000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2.96% 오른 8만7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날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5866억원어치를, 외국인은 1조 184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이날 거래대금 규모는 3조9360억원으로 지난 1월 11일 기록한 4조207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국내 시가총액 18.8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빨간불이 들어오자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탔다. 뒤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SK하이닉스(6.24%)도 '인공지능(AI)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주가 전망이 밝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하이닉스 5일 증가는 전일 대비 2.61% 오른 2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4일에는 장중 24만4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2만원,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제시하는 국내 증권사도 등장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BNK증권이 9만3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하나증권이 10만6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높였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 품질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 3분기 이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DB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21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31만원에서 3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눈길을 끌었다.

투자자들은 국내 시가총액 1·2위가 이끄는 주가 상승세가 코스피 '박스피 탈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

다. 여기에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예측되는 지표들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물가 하락 물가 둔화의 향방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CPI 상승세가 둔화하면 대형주 중심의 투심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이하로 발표되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잡은 곳은 코스피 밴드 상단 3200을 제시한 대신증권이다. 이어 ▲메리츠·삼성증권 3150 ▲NH투자·하나증권 3100 ▲한국투자·현대차현신한투자·키움증권 3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자산운용사, ETF 시장 추격전... 차별화로 선두 지키기

한투운용, 빅테크 밸류체인 구체화 삼성운용, 채권형·국내주식 특화 미래에셋운용, 해외 관련 지수 상품

〈자산운용사 ETF 시장 현황〉

(7월 7일 기준)

자산운용사	순자산액	점유율
1 삼성자산운용	60조2733억원	38.73%
2 미래에셋자산운용	56조7467억원	36.47%
3 KB자산운용	11조7854억원	7.57%
4 한국투자자산운용	10조4119억원	6.69%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한국투자자산운용이 운용사 '빅3'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각자마다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 개발 등 활발한 브랜딩을 펼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자산운용의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은 10조4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5조9415억원에서 약 75.24%나 늘어났다. 현재 11조7854억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KB자산운용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ETF 시장 내 점유율도 한투운용과 KB자산운용

각각 6.69%, 7.57%씩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한투운용이 4.8%, KB자산운용이 8.0%로 3.2%포인트 가량 차이 났지만 간격이 좁혀진 모습이다.

지난 2022년 한투운용은 ETF 브랜드명을 기존 'KINDEX'에서 'ACE'로 바꾸면서 활발한 마케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빅테크 밸류체인 ETF' 시리

즈에 주력하며 상품 라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김승현 한투운용 ETF 컨설팅담당은 "빅테크 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등에 투자하며 승자독식 구조와 그들이 구축한 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에 인공지능(AI) 등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운용의 가파른 성장세에 3위를 유지하고 있는 KB자산운용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8.03%에서 현재 7.57%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ETF 브랜드를 기존 'KBSTAR'에서 'RISE'로 탈바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B자산운용이 리브랜딩 후 어떤 테마를 강점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위 자산운용사들은 각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투운용은 빅테크 밸류체인 라인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삼성자산운용은 채권형·국내 주식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관련 지수 상품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최근 내놓은 'TIGER 미국 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ETF는 한국거래소와는 별개로 지수사업자와 협의해 독점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력 있는 혁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프리미엄' 같은 새로운 전략도 그 일환"이라며 "최근 들

어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도 '리드 앤 두베터(Lead & Do Better)' 전략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시장을 선도(lead)하면서도 선점하지 못한 상품군은 더 나은(do better)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전략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상품을 준비하고, 기존 상품들 또한 매크로 환경에 맞춰 다시 소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B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집중한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관계자는 "연금 상품은 주식, 채권 등 자산군을 막론하고 해외형 상품에 집중하려고 예정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ETF 발행사 및 공급자로서의 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한 방향점"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거래대금 줄어

바이오·이차전지 업종 약세 영향 하반기 상승여력 가능성 있어

이달 들어 코스피가 2800선을 재탈환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과 거래대금은 줄고 코스피와 수익률 격차까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30.2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29.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6년여 만에 최저치다. 지난달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7922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적었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사이 손바꿈이 활발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회전율 낮

으면 그만큼 거래 횟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1~2월만 해도 2% 후반에서 3% 초반을 오가던 코스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7월에는 1%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스피가 지난 6월부터 이달 6일까지 8.48% 오르는 사이 코스닥 상승률은 0.85%에 그쳤다.

거래대금 추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코스닥은 올해 3월부터 하락세를 견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1월 195조 2469억원에서 6월 246조335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230조9147억원에서 167조527억원으로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코스닥시장 부

진의 배경으로 바이오와 이차전지 업종의 약세를 꼽았다. 특히 코스닥에는 바이오 등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바이오시장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하반기 코스닥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차전지주에 대해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시장의 기대치와 펀더멘털 간의 균형이 이뤄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테슬라 주가 흐름을 들었다. 테슬라의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동기 대비 5% 감소한 44만4000대로 수치만 보면 역성장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앞서 낮아진 기대감이 예측했던 시장 추정치 43만000대보다는 인도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6.05%, 2일에는 10.20%, 3일에는 6.54% 급등하는 등 최근 3거래일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허정윤 기자

## "2분기 실적 기대... 증권업계 최선호주"

metro 관심종목 삼성증권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기대감

삼성증권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삼성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0.59% 오른 4만2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달 1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319억원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및 총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자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이익 체력과 우호적인 영업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세제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제 지원안에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 법인세 세액 공제, 법인세 세액 공제 적용 기업의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분리과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삼성화재와 유사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 배당성장 40%를 가정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7.7%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에너지 운송 혁신… 이동형 ESS로 도로를 전력망으로”

## 도전! 스타트업UP

### 이온어스

디젤발전기 대체 친환경 전력 공급 이동형 ESS로 온실가스 73% 감축 ‘인디고’ 브랜드로 다양한 시장 공략 “에너지 이동공급 수요 클 것 예상”

“모든 도로를 전력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출발,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실제 전기차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배터리 모듈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이동형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한 이온어스(aeonus)가 그 주인공이다.

“디젤엔진을 이용한 기존 발전기는 소음과 발열이 심하다. 고정형ESS는 한번 설치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자칫 화재 위험도 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를 이용한 배터리팩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에너지(전기)를 직접 운송하자’는 목표로 창업했다.”

경기 군포에 있는 이온어스 본사에서 허은 대표가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이온어스를 창업했다. 그에게는 케이씨에스글로벌에 이은 두번째 도전이다.



이온어스 허은 대표가 경기 군포에 있는 본사에서 ‘인디고 모바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창업 당시 허 대표는 연축, 니켈수소, 리튬이온 전지 등 다양한 전지에 대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PMS(Power Management System) 등 ESS 기술 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0년 넘게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가 이온어스를 창업한 것은 제주 구좌읍에 있는 ‘이고팡(e-GOPANG)’ 전기차 충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고팡 충전소는 BMW의 전기차(i3) 10대의 배터리팩으로 ESS를 만들고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충전소다. ‘ESS를 이동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아예 사업화를 결심한 것이다. 허 대표는 “탄소중립 이슈 때문에 앞으로 디젤발전기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디젤에 비해 친환경 ESS는 73%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의 전동화는 이동충전과 이동형 ESS 배터리팩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온어스 군포 본사 1층에는 ‘JEJU e-GOPANG CHARGING STATION’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사람 키보다 큰 ESS 장치가 고스란히 놓여있다.

이온어스는 LG에너지솔루션의 E78 배터리 모듈을 이용해 ‘55kWh 이동형 ESS 배터리팩’(이온어스 MoBatt)을 개발했다. 배터리팩 2개를 현대차의 전기트럭 ST1에 장착해 110kWh 이동전력공급 차량 ‘인디고 모바일(indego MOBILE)’을 만들었다. 인디고 모바일은 야외행사, 공사현장, 재난현장 등에서 디젤발전기 대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꼽힌다.

인디고 모바일은 한번에 5대의 전기차를 연결해 충전할 수 있다.

‘인디고 스테이션’ 모델은 10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연료가 다 떨어져 길에서 있는 차량에 긴급 주유를 하듯 전기차에 비상용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차 이동충전차량 ‘인디고 차지(CHARGE)’ 역시 대표 라인업 중 하나다.

22명 가운데 8명이 연구개발(R&D) 인력인 이온어스는 그 사이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딥테크팁스

등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동형 ESS 배터리팩은 국내 최초로 KC인증(62619)을 받았다. 게다가 ESS시스템, 배터리팩, 전력제어, 운영기술 등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특허 출원·등록도 마쳤다.

이온어스는 이동형 ESS를 탑재한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 제작사 자격을 등록하고 차량 하우징 및 구조물을 직접 디자인, 디지털 검증을 통해 안전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동형 배터리팩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향후 에너지 이동공급에 대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한 앞선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온어스는 에너지 모빌리티의 실시간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산→사용→회수→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온어스는 올해가 5년차다. 2022년엔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엔 2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제품 출시 등이 가시화되며 매출이 2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성장세다.

/군포(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상반기 신청자도 기준 확대 적용

정부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센터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

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달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기보, 태국신용보증공사와 실무 워크숍

보증제도, 리스크관리 등 공유

기술보증기금이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들과 보증제도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열었다.

7일 기보에 따르면 워크숍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경기 용인에 있는 기보인재개발원과 서울 영업점에서 진행했다.

기보는 지난 2022년12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 이어 제3차 워크숍을 기보 주관으로 국내에서 열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팻사라나오와 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인재개발원에서 ▲기관 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이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 여경協 “여성기업 판로확대 모색”

LH와 간담·구매협력 상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LH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열고 회원사 판로 확대·지원에 나섰다.

7일 여경협에 따르면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LH와 여경협이 공동 개최한 이번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는 여성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현안 공유와 의견 수렴 및 판로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 간담회’에선 LH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경협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LH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여성기업 보호대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여성경제인은 건설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호텔형 등 라인업 제품 12종 출시

현대리바트가 신혼부부 침실 트렌드를 반영한 ‘트윈 베드’ 라인업 제품 12종을 출시했다.

7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트윈 베드는 두 개의 싱글 침대를 결합해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분리된 수면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침대 헤드 부분에 넓은 확장 패널이 있는 ‘호텔형’, 두 침대를 가까이 붙여 하나의 큰 침대로 보이는 ‘체결형’, 두 침대가 넓은 간격을 두고 완전 분리된 ‘단독형’ 등이 있다.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서로 수면에 방해되지 않고 개별 공간을 만들어주는 트윈 침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 라인업을 구축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두 명이 한 침대를 사용할 경우 서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받을 수 있고, 각자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가 달라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며 “트윈 베드가 편안하고 개인화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코트라, 日·남아공서 'K-라이프스타일' 행사

# 한류 타고 소비재 수출길 넓힌다

나고야 이온몰 기소가와점서 34개 기업, 뷰티용품 등 선봬

요하네스버그 수출상담회부터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한류 문화 확산을 등에 업은 한국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 소비재 수출을 돕기 위한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남아공 행사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먼저 나고야에서 열리는 K-라이프스타일은 일본 최대 쇼핑물 체인인 이온몰(AEON MALL) 기소가와점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34개사가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종의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판촉전 개시에 앞서 SNS를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섰다.

한류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소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형 소비재 유통망 로프트(LO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매출은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로프트에서 판매된 전체 화장품 매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코트라는 로프트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일



일본 나고야에서 6월28일~7월8일까지 진행되는 'K-라이프스타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의 멤버 이마다 노조미(Imada Nozomi)가 SNS를 통해 한국 소비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코트라

본 로프트 일대일 입점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3일~6일까지 열린 K-라이프스타일 행사의 경우 6월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협력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아프리카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해 △수출상담회 △한국소비재 판촉전 △시식회 △문화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는 국내기업 19개사를 비롯해 남아공과 케냐, 모잠비크 등 3개국의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했다. 또 한식품과 전통주 시식·시음회를 비롯해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 화장품·한복 체험관, K-팝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사전 신청자가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현

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즐겼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액은 1579만달러로 2018년부터 연평균 58.2%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현지인들이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다. 냉동만두와 라면 등 간편식이 남아공 주요 유통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고, 올해는 현지인이 한식당을 개점하는 등 한식 열기도 뜨겁다.

정외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내 중소 도시에 한국 소비재 수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경북 예천양돈농장 돼지열병 확진

안동 발생 이후 5일 만에 추가 발생  
충북 단양 등 6곳 이동중지명령 발령



긴급 방역 모습.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7일 경북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6시까지 경북 예천과 안동,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긴급 방역·살처분 등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양돈농장(960마리 사육)의 ASF 의심신고가 이날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경북 안동지역 발생 이후 불과 4일만의 추가 발생이며, 올해 들어 6번째 양돈농가 내 확진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 및 양돈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립·차량의 이동 통제에 나섰다. 예천군 및 인접한 시·군 6곳(경북 안동, 영주, 의성, 상주, 문경, 충북 단양)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돼지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이 대상이다. 또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곳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곳에 대

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50여 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 추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대책회에서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발생농장은 농장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검출됐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검출이 많은 경북의 여타 지역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살처분 등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달 기준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2차 모집

사회적기업진흥원 이달까지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일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이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

다는 취지에서 참여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됐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이를 경영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해 7월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우포늪·화왕산 국립공원 일대 습지·산림 생태계 통합보전 추진

경남 창녕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7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인사회에서 경남 창녕 전역(530.51㎢)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



경남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우포늪(왼쪽)과 화왕산.

지역과 화왕산 국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또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의 통합적 보전에 나선다. 유네스코가 인증하

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유네스코 지역에 걸맞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창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포늪으로 대표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라며 "창녕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개최

한기대, 600명 대상 기술 전수  
집체·온라인 등 하이브리드 강의

직업훈련 교·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강이 개최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교·강사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집체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강에 참여할 직업훈련 교·강사는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7

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강에서는 아나운서 출신이자 스피치 전문가 정흥수 흥버튼 대표가 '청중을 사로잡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기대 정혜경 HRD학과 교수가 '훈련교·강사역량관리 체계' 강연을 통해 훈련 교·강사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h**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울산시, 주력산업·신산업 연계 기술강소기업 유치 '박차'

협약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 양질 일자리·울산시민 최우선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 약속 연구개발에 최대 8000만원 지원

울산시는 지난 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술강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연계할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뉴라이즌, 디플라, 마커스, 아이엠디, SG산전, 엠디소프트, 엠유트론, 유메드, 은연테크, 카비랩, 케이엠오테크 등 올해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기업은 4차



울산시청.

/울산시

산업 혁명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한다. 또 직원 근로 환경 시설 개선 투자와 사업비 집행 시 울산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기업당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을 돕는다.

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서는 기술강

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기술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됐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술강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 유치 및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으로 기업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년간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창업 기업 특별 지원 보조금 및 R&D 자금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추진하는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4년간 울산으로 이전한 기술강소기업 41개사를 선정해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저탄소 녹색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완도군

####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남 완도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고금면 용초리와 약산면 구성리 2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가 되는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2028년까지 두 개 마을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41억 여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도

#### 제안제도 운영평가 시상식

경북도는 지난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년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14번째를 맞는 제안제도 운영 평가는 제안제도 운영 실적, 특수시책 추진 실적, 자체 제안 공모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항목 서면 심사 및 대면 평가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시군을 선정 표창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8 곳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상주시·예천군, 우수상 구미시·의성군, 장려상 경산시, 영천시, 봉화군, 고령군이 수상했다.

/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 영양군

#### 집중호우기 대비 민관합동 대처

영양군은 여름철장마 등 집중호우기를 맞아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지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30일 마을 지리와 환경에 밝은 이장 115명, 자율방재단 146명, 의용소방대 57명, 자율방범대 54명, 공무원 195명을 포함한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및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6월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예측구역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경북문화관광공

#### 보문관광단지 기념우표 나온다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는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념우표 발행 사업에 보문관광단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사의 이번 기념우표 사업 선정은 2025년 개장 50주년을 맞이하는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부각하고, 새로운 50년 관광 역사를 준비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반영하여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 전남도, 무안~항저우 노선 취항 도모

김영록 지사, 中 저장성 방문 정기노선 안착 위한 지원 요청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논의



무안국제공항.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랜 우호관계인 중국 저장성(浙江省)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남권 관문 무안과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를 잇는 정기 노선 취항 협약을 맺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 전남도 관광설명회와 무안~항저우간 정기노선 취항,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중국호남항우회와 현지 거주 유학생 등 30여 명을 초청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이튿날엔 이례훈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

기노선 안착 등에 저장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무역·문화·관광과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저장성의 참여도 요청할 방침이다.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항공업계,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정기노선 협약은 인아아웃바운드 여행사인 에이앤티(A&T), 항공운항계약대행사인 노타에어서비스와 체결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현 기자 ysn6313@

## 부산시, 지난해 기준 환경산업조사 진행

오는 12월 조사결과 공표 예정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의 역점산업인 환경산업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 등을 파악해 환경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평가·분석, 국비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부산에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8000여개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수출액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미래 100년 좌표 제시할 '김해연구원' 출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5번째

인구 56만 김해시 미래 100년의 좌표를 제시할 김해연구원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5번째로 출범했다.

김해연구원은 지난 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홍태용 시장과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허남식 신라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경제산업연구부, 문화관광복지연구부, 도시교통환경연구부 등 3개 연구부에 18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경영지원실 등 1실 3부의 연구조직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분야별 시민 편익 제도 연구로 지속 가능한 김해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앞장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와 출자출연 기관 수탁 용역 수행 ▲낙동강협의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정책 연구 ▲신사업 기획 등을 맡는다. 또 급변하는 사회, 경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원이 첫 걸음을 뗐다"며 부울경 중추도시인 김해시 발전을 견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구미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2027년까지 연 655억 지원

구미시가 차세대 주력 반도체산업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총 10개 대학(단독형 4, 동반 성장형 6)을 선정해 2027년까지 4년(2+2) 동안 연간 65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구미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공모유형 중 동반 성장형(비수도권 연합)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

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4년간 1500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 28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반도체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지정된 '경북·구미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구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우수인재를 적기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무더위 초복 성큼’... 집에서 즐기는 간편 보양식 인기몰이

식품업계, 장마철 집밥족 공략  
신세계푸드 ‘올반 삼계탕 2종’  
지난달 판매량 전년비 45% ↑  
하림 맛집 비법 초계국수 출시  
대상 호밍스 녹두 삼계탕 선배



호밍스 녹두삼계탕.



호텔컬렉션 한우사골삼계탕. /신세계푸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집밥족이 늘어난 가운데, 다가오는 복날을 앞두고 ‘홈보양족’이 증가하고 있다. 무더위와 습한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 보양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반 삼계탕 간편식 2종의 6월(6월 1~25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올반 삼계탕의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55만개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올반 삼계탕의 판매량 증가는 이른 무더위로 보양식의 대명사인 삼계탕을 일찍부터 찾는 소비자가 늘고, 동시에 외식물가가 부담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삼계탕 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신세계푸드 측은 분석했다. 실제 2021년 18만개였던 신세계푸드의 올반 삼계탕의 판매량은 2022년 22만개, 2023년 38만개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올 여름에도 삼계탕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

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신제품 출시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2주간 이마트, G마켓, SSG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쇼핑하기, 쿠팡 등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올반 삼계탕을 특별가격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도 보양 간편식 판매량은 증가세다. 위메프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직전 2주 대비 밀키트가 43% 증가한 가운데, 닭고기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양한 품목의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상품별로는 ‘삼계탕’ 판매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밖에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갈비탕이 27%, 추어탕은 21% 판매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 폭염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식재료 손질과 조리 과정을 줄여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보양식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며 “삼계탕 뿐 아니라 고품질의 보양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간편식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삼계탕을 라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삼계탕면’과 ‘데미식(The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다.

특히 데미식 초계국수는 데미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냉면류 제품이다. 외식 냉면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냉면 밀키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데미식만의 비법이 담긴 초

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전문점에 뒤지지 않는 푸짐한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다.

하림은 전문점 수준의 초계국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졸을 서서 먹는 전국의 초계국수 맛집을 직접 돌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차례 거쳐 데미식만의 비법을 담은 초계국수를 완성했다.

대상 청정원의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Home:ings)’는 ‘녹두삼계탕’을 선보였다.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크기인 5호탕(정육 기준 500g 이상)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고, 국내산 수삼과 대추, 찹쌀과 함께 곱질을 벗겨 더욱 고소한 녹두를 가득 넣어 영양분까지 제대로 챙겼다.

간편한 1팩 구성도 강점이다. 포장을 뜯지 않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냄비에 데우면 외식 못지않은 든든한 보양식 한끼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청정원 호밍스 ‘녹두삼계탕’은 마켓컬리, 쿠팡 등이 커머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대형마트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외식 삼계탕 1인분의 최근 가격은 1만4000원대 후반에서 1만7000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외식 삼계탕 1인분의 평균 가격은 서울 기준 전년보다 2.8% 오른 1만6885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6.7% 올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코카콜라 워터밤 서울 2024 차은우·권은비 퍼포먼스

코카-콜라는 세계 1등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워터밤 서울 2024’에서 써머 모델로 활약 중인 차은우와 권은비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워터밤 서울 2024’에서 차은우는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등장, 권은비는 페스티벌 이틀 차 인업에 출격하며 관객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쿨 모먼트를 선사했다.

페스티벌 첫날 차은우는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등장해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이튿날인 6일에는 차은우에 이어 스프라이트 써머 캠페인 모델로 발탁된 워터밤 여신 권은비가 무대에 올랐다. /신원선 기자



스프라이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워터밤 서울 2024’. /코카콜라

## 현대백 “셋 이상 출산 축하금 1000만원”

임신·출산·육아 복지 혜택 확대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 제공  
임신 직원, 엽산·종합비타민 선물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 상향이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

로 늘렸고,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도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우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

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최빛나 기자 vitna@

## 르꼬끄골프 새 브랜드 콘셉트 발표

르꼬끄골프가 브랜드 재정립에 나서며 새 브랜드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대상트코리아의 골프웨어 브랜드 르꼬끄골프는 브랜드 재정비에 나서며 신규 브랜드 콘셉트를 발표했다. 르꼬끄골프는 이번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스타일과 기능을 아우르는 투 트랙으로 브랜드 콘셉트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브랜드 정체성은 스포츠 감성에 기반한 색상과 골프웨어의 본질인 기능적 요소에 맞췄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 아디다스 “대규모 체험형 이벤트 성료”

손흥민·박재범 등 F50 출시 기념 행사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초경량 축구화 F50 어드밴스먼트팩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글로벌 파트너 손흥민, 정호연, 박재범과 함께한 ‘오직 스피드를 위해’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오직 스피드를 위해: SON IS COMING’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제품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린 대규모 이벤트다. F50을 신고 스크린 풋볼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부터 F50 시리즈의 기능성과 히스토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존’,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스페셜 포토부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특히 6일에는 글로벌 파트너 손흥민과 정호연, 박재범이 아디다스의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 ‘YOU GOT THIS-널 믿어’를 주제로 한 토크쇼에 출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영등포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번 행사는 깜짝 서프라이즈로 진행된 손흥민 선수의 생일파티까지 더해져 수많은 국내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YOU GOT THIS-널 믿어’ 토크쇼에서는 손흥민과 박재범, 정호연이 가장 애정하는 아디다스 아이템을 소개하는가 하면,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비결, 팬들에게 전하는 용기의 메시지 등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 이랜드이츠 더 카페, ‘제로 바닐라 라떼’

당 시럽 대신 대체 당 파우더 사용

이랜드이츠의 카페 프랜차이즈 ‘더 카페(THE CAFE)’가 ‘제로 바닐라 라떼’를 출시했다.

더카페의 제로 바닐라 라떼는 100ml 당 당류가 0.5g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당류 불검출 인증을 받은 ‘제로슈거(제로당)’ 음료다.

또한 바닐라 라떼의 진한 맛을 살리기 위해 대체 당 시럽 대신 대체 당 파우더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바닐라 라떼와 거의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더카페는 제로슈거 바닐라 라떼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적 레시피로 제작한 전용 바닐라 파우더를 사용했다. 본 파우더는 더카페 상품개발실에서 약 2년에 걸친 개발 끝에 완성했다. /신원선 기자



제로 바닐라 라떼. /이랜드이츠

## 롯데슈퍼 하절기 무료 배달 시행

롯데슈퍼가 고객들의 두 손을 가볍게 해준다.

여름 시즌인 7월에 접어들면서 무더운 날씨에 지속됨에 따라 수박이나 생수 묶음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중량이 있는 만큼 고객들이 자택까지 들고 가기 어렵고, 특히 슈퍼 주 고객층인 5060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롯데슈퍼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잠원점을 포함한 전국 137개점에서 ‘하절기 무료 배달’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빛나 기자

# MZ는 '촌캉스'하러 시골로, 가족들은 '키캉스'하러 호텔로

(촌+바캉스)

(키즈+바캉스)

## 2030세대 중심 촌캉스 유행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 메이필드호텔, 롯데리조트 등 키캉스 패키지 상품 다수 선보

속세를 벗어나 농촌에서 휴가를 즐기겠다는 이른바 촌캉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숙박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질세라 과거 코로나19 시절 호캉스(호텔+바캉스)의 인기를 누렸던 호텔업계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촌캉스를 찾는 여름휴가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촌캉스 및 시골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촌캉스의 SNS 언급 횟수가 2021년에는 5만 건에 불과했으나 엔데믹을 맞이한 2022년에는 약 8만 건을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지로서 농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농촌 풍경의 사진

/안재선 기자



롯데리조트속초 인피니티 풀 사진

/롯데리조트속초

농촌을 찾는 배경에는 휴가철 일상에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엠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2%가 올해 여름휴가 때 '도심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자연을 즐기며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촌캉스'로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휴가철 고객요구에 응답하고자 민박업자들은 '농촌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골 할머니 집을 연상케 하는 강원도 삼척의 한 민박업체는 숙박과 함께 위아래 '뽕뽕바지' 세트 구성된 2030 촌캉스 룩과 이를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변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 안내 및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해당 숙박은 커뮤니티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증샷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해당 숙박

은 7월 전체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촌캉스 열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홍보 움직임에 나섰다. 특산물을 직접 수확해 보고 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등의 농촌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촌캉스가 2030세대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면 호텔업계는 가족 단위 고객층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최근 호텔 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키캉스(키즈+바캉스) 패키지 상품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메이필드호텔은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객실을 꾸민 '에디키즈 콘셉트룸'을 추가로 선보였으며, 롯데리조트속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린세스 오브 퍼레이드' 패키지를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는 호텔에 숙박하는 어린이들이 왕자와 공주로 변신해 여름맞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상품이다.

시민들 역시 연령대별 휴가지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인을 20대라고 소개한 노모씨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재밌게 지내고 싶다"며 촌캉스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답했다.

반면 6세, 7세 아이들을 둔 40대 김모씨는 "여름휴가 동안 호텔에서 아이와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한 곳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호텔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뒤풀이 아이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이번 여름휴가를 호텔로 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수분·지속력' 높인 여름 메이크업 제안

### 헤라, 광택·생기 연출 제품 출시 에스쁘아 '세레나데 에디션 세트' 에뛰드, 단종템 마케팅 승부수

아모레퍼시픽이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 뜨거워 날씨에도 지속력을 갖춰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는 최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와 '센슈얼 립앤치크'를 출시해 '글로우'를 주제로 한 여름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는 헤라의 인기 제품 중 하나다. 헤라는 여름 신규 색상으로 핑크 베이지 톤인 '클루리스'와 자두 빛깔 '플럼 프렙'을 추가했다. 해당 제품은 빈틈 없이 밀착돼 여러 번 덧바를수록 선명한 색이 나타나고 여름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광택감까지 갖췄다는 것이 헤라 측의 설명이다.

'센슈얼 립앤치크'는 입술과 볼에 함께 사용하는 다용도 제품이다. 헤라는 입술과 볼에 스며 녹아드는 제형을 구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와 '센슈얼 립앤치크'  
/아모레퍼시픽

현해 피부 본연의 톤 위에 얇게 베어 나오는 투명한를 연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한다. 색상은 동백, 라제리, 얼리 라벤더 등 총 3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는 '세레나데 에

디션 세트'를 내놨다. 이번 기획은 에스쁘아 대표 색상인 '세레나데'를 립 제품과 볼 터치 제품으로 선보인 것이다.

에스쁘아의 '세레나데'는 뷰티 업계 인플루언서, 셀럽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층에서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색상이다. 이에 대해 에스쁘아는 미지근한 핑크 색이 피부 혈색에 오묘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고급스런 메이크업 색상으로 주목받아 소비자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꾸뛰르 립틴트 블러 벤텍'은 완전 무광 제형의 립 제품이다. 기존 벤텍 립 제품의 건조함과 조임 현상을 개선해 얇고 편안한 감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쁘아 측의 설명이다.

세레나데 색의 볼 터치 제품인 '톤페어링 리퀴드 치크'는 세럼 성분과 고굴절 오일이 피부 속까지 관리해 준다. 에스쁘아에 따르면, 방금 메이크업을 마친 듯 맑게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는 여름 메이크업

시장에서 '단종템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에뛰드 '젤리광 컬렉션'은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룩 앤 마이 아이즈, 디어 달링 워터젤 틴트 등으로 구성됐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다. 단종된 색상이 재구성됐을 뿐 아니라 기본 색상, 음영 메이크업용 색상, 포인트 색상 등을 4가지로 한 데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룩 앤 마이 아이즈'는 90년대생이라면 학창시절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눈 화장용 제품이다. 이번 '젤리광 컬렉션'을 통해 빙산의 일각, 내마음을 돌려줘, 미니피치 등이 재출시된다. 에뛰드는 에뛰드만의 작명 또한 소비자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디어 달링 워터젤 틴트'는 촉촉함과 지속력을 동시에 갖춘 립 제품이다. '젤리광 컬렉션'으로는 청량감을 더한 신규 색상 2종이 나온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LG생활건강

### 고객 피드백 반영한 '강아지 발씻자' 출시

LG생활건강이 산책 후 강아지 발씻기가 고민인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LG생활건강은 강아지용 풋샴푸 '강아지 발씻자'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아지 발씻자'는 LG생활건강 발을 씻자 팀과 핏케어 종합 브랜드 시리우스 팀이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양 팀은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에서 고객들과 공유해 왔다.

개발 현황을 '주간 보고' 형식으로 게시했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피드백 내용 가운데 강아지의 피부가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점을 보완해 보습 성분을 첨가했다.

또 손 쉽게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노 워시' 유형으로 개발했다. /이청하 기자

## 유한양행

### 당규락, 350억 판매성과

유한양행의 혈당 관리 제품이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혈당 유산균인 '유한양행 당규락' 누적 매출이 35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출시된 유한양행 당규락은 유산균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처음으로 유산균 자체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개별인정형 유산균이다.

유한양행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의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도 유의적으로 감소했음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 이화의료원, '다빈치 SP'로 로봇 수술 분야서 선도적 역할

### 직장암·간 전이암 수술 동시 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진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 역량을 쏟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20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직장암과 간 전이암 수술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수술은 간 전이암 환자에서 해부학적 간 절제를 포함한 동시 수술로, 국내 최초 사례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처음 혈변을 발견한



노경태  
대장항문외과 교수

조영수  
간담체외과 교수

후 올해 1월 다시 혈변이 있어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A씨의 경우 대장내시경을 통해 직장암이 확인됐고 추가 검사 과정에서 간

좌외측구역에 전이가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은 함께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고 6차 합암 치료 후 직장암 및 간 전이암에 대해 동시 수술을 결정했다.

해당 수술은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노경태 이대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와 조영수 간담체외과 교수가 집도했다.

먼저, 노경태 교수는 종양을 포함한 직장 및 하부 S자 결장을 종양 주변 림

/이청하 기자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병원, '몽골 현대병원' 개원... 해외진출 본격화**  
 중앙대 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이 해외 의료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병원은 지난 5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자병원 '몽골 현대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부섭 현대병원장, 강암구 행정원장 등 현대병원 운영진들, 청담연구소의 최창근·이선재·신성식 자문위원, 몽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대병원



**동아쏘시오그룹,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역 사회에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4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오른쪽)과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세종대, '디지털융합형무역전시 인력양성사업' 선정**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디지털융합형무역전시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왼쪽부터)이화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장수철 상근부회장, 조미혜 세종대 관광대학원 원장, 김봉석 경희대 교수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티웨이항공-성균관대, 마케팅 실무 체험 산학협력**  
 티웨이항공이 성균관대 실전 마케팅학회 'SCAN' 소속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교육 과정 시상 및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대학생들에게 마케팅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및 동남아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전달했다. /티웨이항공



**골든블루,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참가**  
 골든블루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해 소비자들과 다양하게 소통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골든블루 사피루스'와 'K-하이볼 골든 하이볼'의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각각의 '골든블루' 라인업이 가진 제품력을 강조했다. /골든블루

# KT-고려대, AICT 응용기술 개발 맞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추진  
 김영섭 대표 "AICT기업 확립"

KT와 고려대학교가 AICT(인공지능·정보통신 기술)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KT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AICT 응용기술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기술 완성도 제고 및 R&D(연구개발) 과제 추진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산학 연구개발용 GPU(그래픽처리장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한다. 공동 연구개발센터의 연구소장으로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부장(부사장)과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공동 선임됐다. 또, KT와 고려대는 각 3명씩 총 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오른쪽)이 AICT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동대문 노보텔 엠베스터 호텔에서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학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해 우수한 AI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AICT 기업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과 대학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metroseoul.co.kr

# 서울시, '청년 해외 원정대' 출정... 美·베트남 순회

4주간 현지 기관·기업 탐방

서울시는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가 첫 출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성장의지는 있지만 해외 경험 없이 있던 청년들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정대로 선발된 서울 청년 30명은 이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해 내달 5일까지 약 4주간 미국·베트남 현지 기업 탐방을 통해 다양한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원정대는 오는 15~25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선진 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LAM 리서치, 플러그앤플레이, K-이노베이션센터 등 주요 글로벌 기업·기관을 찾는다. 또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 학습을 위해 UC버클리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도 방문한다.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발대식' 모습. /서울시

Simple Steps 김도연 대표 등 선진국에 진출해 취·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을 직접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 최초의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의 '역경을 이겨내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다. 오는 25일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 원정대원들은 내달 5일까지 신흥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탐방하며 성장하는 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등 현지 기관을 방문해 베트남 일자리 트렌드와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삼성전자, 아남전자, 한솔테크닉스 등 현지 기업 공장과 연구소를 견학하며 글로벌 제조·공급망을 체험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세븐일레븐, '도농교류의 날' 농식품부 장관 표창

농촌지역 지원활동 등 공로 인정

세븐일레븐이 지난 5일 '2024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해 농촌발전유공 도농교류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농촌지역 지원활동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농촌지역 기부 및 기증활동'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속적·정기적 도농교류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도농교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농촌 인식 증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푸드뱅크 후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촌지역 기부 및 기증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21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출연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역 우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농촌진흥청과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각지의 강소농 및 청년농부가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군 등 지자체

들과도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북 영천 마늘, 전남 무안 햇양파, 충남 부여 햇감자 등 현재 세븐일레븐이 취급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도 30여개 지역, 약 60개 품목에 달한다. 2022년에는 해양쓰레기 저감 및 반려하면 홍보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촌지역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20회에 걸쳐 통영, 영덕, 삼척, 울진, 포항, 강릉 등 산불·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촌지역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해 농촌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도 큰 힘을 보탤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유쓰피릿' 14기 모집

LG유플러스가 7일 대학생 앰배서더 프로그램 '유쓰피릿' 14기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쓰피릿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활동 및 홍보는 물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먼저 경험해보는 Z세대 자문단이자 크리에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운영한다. '유쓰(youth)만의 정신(spirit)으로 도전하는 20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유쓰피릿 14기는 8월 9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정된 인원은 콘텐츠 기획·제작 실무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주제로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디바이스 및 AI 기술 체험단 ▲Z세대 자문단 ▲유쓰 브랜드 필름 및 유쓰피릿 모집 포스터 모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GC솔루션 글라스락 'LOHAS' 인증

SGC솔루션의 유리밀폐용기 브랜드 글라스락이 대한민국 로하스(LOHAS) 인증을 밀폐용기 부문에서 최초로 18년 연속 획득했다. 7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로하스'는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건강·환경·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창조적인 상품개발, 서비스활동, 환경경영 및 사회공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글라스락은 자연에서 온 원료를 배합한 고유의 내열강화유리 소재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 캠페인 전개와 사회공헌에 대한 지속된 노력을 인정받으며 건강 지향성, 환경성, 안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 넥슨 '더 파이널스' 대회 개최

게임 회사 넥슨이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넥슨이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3'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더 파이널스'는 넥슨의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의 1인칭 시점 슈팅게임(FPS)으로 이번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3'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과 8월에 최강자전을 치른 뒤, 9월에 시즌3 챔피언십이 진행된다. 시즌3 챔피언십은 각 대회의 상위 3개 팀이 최종 결승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최강자전 참가자는 이달 17일까지 모집하며 예선전은 오는 21일에 진행된다. 또 이달 28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네 개의 팀이 4강전 및 결승전을 치른다. /최빛나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3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 부정경쟁행위, 적극 대처해야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업체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자(이하 '침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또한 권리자는 법원에 위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①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침해를 조성한 물건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광고선전물 중 일부 표현 등의 삭제, 광고의 중지, 수출입 금지 조치, 거래처에 대한 통지, 필요한 내용의 광고, 상호 등기의 말소 등) 역시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은 재산적인 이익(현금, 자산 등) 외에 신용, 명예, 그 밖에 경영상의 이익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침해금지청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침해예방청구)에 놓여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됐거나 침해될 우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할 때에는 개별 사안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소송 등의 제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우선, 침해자에 의해 부정경쟁행위 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금지(예방 포함),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확인 과정에서 추후 증거 제출을 위해서도 확인된 자료나 정보 등의 수집·정리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한 권리자로서는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판단해 봐야 한다. 단기간의 침해행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앞서 살펴본 침해금지 등 청구 외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른 경영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모든 소송 제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침해금지 등 청구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은 필요하다.

물론 위 내용들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우리투자증권, 시각 변동 일으킬까



**기지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포기했던 우리금융이 10여년간 잊혀졌던 '우리투자증권'의 부활을 예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약 1조1500억원 수준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사 상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의 10위권 진입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벼운 예상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증권사에서 핵심 '인력 빼내기'를 시전하고 있다. 특히 경력 측면에서는 충족했으나 진입하지 못한 인력들을 주목하고 있

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기존 연봉의 1.5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데려 가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그룹은 우수 인재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의 인재 영입이 증권가 내 이슈로 떠오르자 시장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증권가 인물들을 추리며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증권 사관학교'로 불렸던 대우증권 출신 인재들을 노골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동지도 미래에셋증권 전신인 대우증권의 옛 사옥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출신 인력들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들을 포섭해 가파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내 초

대형 IB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일괄 지정됐으며, 이후 초대형 IB 지정은 전무했다. 게다가 초대형 IB의 우선요건은 자기자본금 4조원 이상이다. 현재 1조원을 웃도는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으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우수 인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포화된 금융투자업계를 뚫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자본 부담이 덜하다는 강점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투자증권이 우수 인재 영입이라는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odhe@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7월 8일 (금 8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48년생 일취일장할 기회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하라. 60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7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84년생 문제를 만회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 소** 3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49년생 소금장사 떠난데 비 내리는 격이니 잠시 지체. 6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73년생 선봉에 나서면 구실이 따른다. 85년생 오늘은 모든 삶의 중심에 겸손하라.
- 호랑이** 38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50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피라. 62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문서로. 74년생 집착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86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된다.
- 토끼** 39년생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51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3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75년생 가장 큰 협력자는 부모님이다. 87년생 파란 하늘같이 장미꽃 같은 화사한 날이다.
- 말** 40년생 오늘은 신의를 믿고 맡기면 좋은 결과가 온다. 52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64년생 우물거에서 승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7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88년생 적산이 재물의 복으로 쌓인다.
- 뱀** 41년생 거친 파도를 만나지만 튼튼한 배가 있어 걱정 없다. 53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65년생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은 마음만 다침. 77년생 결과는 노력이 가져온다. 89년생 오늘날은 사람 앞에서 자랑보다는 지출하라.
- 말** 42년생 떠나기는 어정쩡한 하루. 54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66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8년생 먼 곳에서 원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90년생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는 형제 때문에 속이 상한다.
- 양** 43년생 오늘은 느긋하게 행동하라. 55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 67년생 계집이 늙으면 여우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79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풀리는 법이니 지속해서. 91년생 어쩌면 오늘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 원숭이** 44년생 결과와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56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68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80년생 최선을 다해도 못하면 내일이 있다. 92년생 믿을 없이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
- 닭** 45년생 경치는 수려하나 머물 곳은 아니다. 57년생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진다. 69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곧 울 것이다. 81년생 힘든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93년생 지금까지 왔듯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 개** 46년생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 58년생 삶이 그랬듯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70년생 내가 도와준 어제의 후배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82년생 내가 좋다고 연인에게도 강요하지 않도록. 94년생 말해주는 없지만 성실하게 행동하라.
- 돼지** 47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조심. 59년생 아랫사람의 조언도 새겨들어야.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83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을. 95년생 낡은 물건이라도 쓸모없지만, 쓸모 있을 때가 있다.

## 김상회의四季 가연

지난 주말에 상담을 온 분은 필자가 외부 출타 중이었음에도 밤늦게라도 시간을 내어줄 것을 간청했다. 필자가 저녁 약속이 있었음에도 다시 충정으로 풍경소리 사무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이유를 듣고 보니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외동딸을 둔 M씨 부부는 귀하디귀한 딸이 유학하겠다고 할 때도 마음을 놓지 못해 따라가고픈 마음이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 유학을 보낸 후 노심초사하며 지내다가 다행히 학교를 잘 졸업하고 귀국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도 되어 이전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남자가 딸 하나 딸린 돌싱이었다. M 부부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 아름다운 인연을 가연(佳緣)이라 한다. 남녀 간의 인연이야말로 가연을 꿈꾸지만 시작이 좋다고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히나 부부 연이다. 아름다운 천생배필을 기대했던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갈만하다. M씨 부부가 급하게 필자를 보고자 한 것은 딸아이의 의지가 강하여 내일 남자를 인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만약 남자와의 궁합이 좋지 않다면 인사 자리를 피하려는 심산이다.

딸은 정숙생 음력 3월인데 타고나기를 역마도 강하고 남자와의 인연은 범상치가 않다. 그런 면에서 남자가 돌싱인것도 딸 인연에 있는 일이다. 딸의 사주를 본다면 초혼에 실패하는 운기도 엿보이며 두 사람 궁합은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돌싱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장애를 한 번 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딸의 자식궁에 인성이 좋아서 남의 자식을 키워도 훌륭하게 된다. 선남선녀 초혼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가연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방만한 부부의 얼굴이 편안해지며 일어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4	3	1
8						
7		4	3			
3	7			6		
		6		2		9
		9	6			8
						3
9	7	3	1			2

		9	5		7	3
			8	1		
	1				8	
		7	9			2
	2			3	9	
		2				6
			6	8		
	8	6		2	3	

할인도서

2	9	5	7	8	1	6	3	4
8	3	1	2	7	9	8	9	7
8	7	9	6	5	1	2		
6	8	2	9	4	9	7	1	
4	1	6	7	9	2	8	9	
7	9	9	2	1	8	4	6	6
9	2	8	6	6	7	1	9	4
5	4	6	1	9	2	7	6	8
4	1	6	4	8	5	4	6	2

7	4	6	2	1	9	8	5	
6	2	9	8	9	4	7	8	1
8	9	1	5	6	7	2	4	6
4	8	6	6	9	1	7	2	
6	9	7	1	2	8	6	9	
2	1	9	7	8	6	4	9	6
9	7	8	6	2	8	9	1	4
9	6	2	4	1	8	6	9	7
1	6	4	9	7	5	6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의대 수시 합격생 “더 상위권으로” 올해 입시엔 ‘등록포기’ 더 나온다

서울대 제외 38곳 등록포기 발생  
성균관대 추합, 모집인원 3배 넘겨  
올해 의대 증원에 추가합격 규모 ↑  
경쟁률 6대 1 안되는 의대 늘어날 것

2024학년도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생의 ‘등록 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 다수 의대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중복 합격 후 보다 ‘상위권’으로 이동하며 상위권 의대로 초집중화되는 양상이다. 모집 인원이 모두 등록을 포기하고도 추가로 3배 넘는 학생들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고서야 정원을 채운 대학도 있었다. 올해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입시계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시 최초 합격자 100%가 모두 등록을 포기한 의대는 19곳에 달했다.

최초 모집인원 대비 추가 합격자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모집인원 25명인 성균관대는 추가 합격자가 77명으로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 3배를 넘겼다. 이어 ▲가톨릭관동대(모집인원 26명, 추가합격 인원 77명) ▲충북대(19명, 43명) ▲조선대(66명, 141명) ▲을지대(24명, 49명) ▲동국대(WISE)(36명, 69명) ▲한양대(39명, 71명) ▲강원대(24명, 42명) ▲경상국립대(48명, 83명) ▲충남대(68명, 107명) ▲고신대(50명, 77명) ▲동아대(28명, 43명) ▲계명대(50명,



일부 대학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원서접수 시작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스1

71명) ▲고려대(62명, 86명) 등 19개 의대의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을 넘어섰다.

소재지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 지역보다 수도권·지방 의대 이탈이 더 심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가천대(메디컬)·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등 4개 경인권 의대에서 95명 모집에 123명(129.5%)이 추가합격하며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강원(128.1%) ▲충청(117%) ▲대구·경북(109.8%) ▲부산·울산·경남(101.5%) 순이다.

반면, ▲호남(86.7%) ▲서울(80.3%) ▲제주(80%)는 추가 합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서울대는 수시 모집인원 89명 모두를 추가 합격 없이 최초합격자로 모집을 끝마쳤다.

수시에서 6개 대학에 원서를 넣은 수험생들이 의대 여러 곳에 중복 합격한 뒤 비교적 상위권 의대에 등록하면서 ‘연쇄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같은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5학년도 지방권 수시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대폭 늘어나 지방권 대학 수시 의대 합격생들은 지난해보다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포기 인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수시 미선발이 늘어나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이월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부터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경쟁률이 6대 1도 안 되는 의대도 기존 3곳에서 올해는 17개 대학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 6회 지원 감안 시 6대 1이 넘지 않는 학과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로도 볼 수 있다”라며 “전국 26개 대학 지역인재전형 평균 경쟁률 10.46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지원자 8369명에서 1만6천여명으로 확대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인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곳곳서 ‘북한 인권’ 포럼·전시 선포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참석한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이달 8~14일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 곳곳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포럼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가

포럼은 ▲(세션1)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 방안 ▲(세션2)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북한인권의 미래 방향성을 짚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및 동행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이달 8~13일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상전시회가 열린다. 7월 8~9일에는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포피아’ 상영과 출연자와의 만남이, 12~13일에는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반 지하 집중 관리… 침수 막는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범창·피난사다리를 설치해왔으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노후·고장으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막고자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 반 지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 지하 2만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5000가구에 대해 이달 8~10일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동탄 침수 위험 반 지하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과 개폐형

점검 결과 침수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침수 위험 반 지하 거주자가 원하면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투기 차단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SBA, 우수기업 발굴·지원에 43.6억 투입

(서울경제진흥원)

혁신 주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CES 서울통합관 운영…기술 선별 것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기업 발굴·육성, 미래 혁신산업 지원,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7일 SBA에 따르면, 올해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에 4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민간과 함께 미래 혁신기업을 찾고 투자 생태계를 키워 고성장 기업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민간 투자기관 및 내부 추천, 3단계 심사를 통해 65개 우수기업을 발굴한다. 스케일

업 센터를 가동, 우수기업의 신속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유망기업 IR 등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SBA는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민간과 함께 서울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좋은 투자 생태계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혁신산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SBA는 기술로 변화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 미래 유망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의 ‘CES2025 서울통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투입 예산은 23억1000만원이다. SBA는 CES 2025에서 서울통합관을 운영, AI·모빌

리티·항공 우주·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술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SBA는 서울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파트너십 협력 확대를 위해 자치구(금천·관악구), 창업센터(서울AI허브), 대학(서강대)을 포함 16개 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에는 29억6800만원을 투자한다. SBA는 글로벌 리딩 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목표다. 현재 SBA는 아마존과 수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해 입점을 지원 중이고, 알리바바닷컴과는 참여기업 입점을 완료해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7월 8일 (월)  
음력 : 6월 3일

수도권 날씨  
24 ~ 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3/28, 동두천 22/27, 가평 22/26, 파주 22/27, 서울 24/27, 양평 23/27, 안성 23/25, 수원 23/26, 용인 23/26, 평택 24/28, 백령도 20/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인터뷰 ‘사전 질문지’ 논란… 하원선 5번째 사퇴 공개 촉구  
▲트럼프, ‘영국의 트럼프’ 패라지 개혁 당 대표에 당선 축하 /사진 뉴스스

▲‘영국 총선’ 노동 412석, 보수 121석 확정…자민 72석, 극우 5석  
▲이라크 총리 “테러와의 전쟁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



▲가자 지구 UN 운영 학교 포격, 최소 16명 사망 /사진 뉴스스  
▲‘여야 대리전’ 日도쿄도지사 선거 시작…무당층 표심 어디로



무더위 초복 성큼  
집에서 즐기는  
간편 보양식 인기  
너



Life

여름휴가 어디로  
MZ는 '촌캉스'  
가족은 '키캉스'  
L2



# 농사에 뛰어든 청년농부 “노지재배 이어 공장설립까지 도전”



새벽을 여는 사람들

등대농장  
이준규 대표

새벽 5시에 일어나 일꾼들을 태우고 열갈이밭으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다. 꽃다운 나이인 1999년생 26살, 이준규 등대농장 대표가 편한 복장으로 열갈이배추가 움트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기자를 맞았다.

이준규 대표는 기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한 차례 수확을 마친 열갈이 배추밭에 다시 밭을 갈고 파종하고 푸릇한 열갈이가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에만 오셨더라도 열갈이가 엄청나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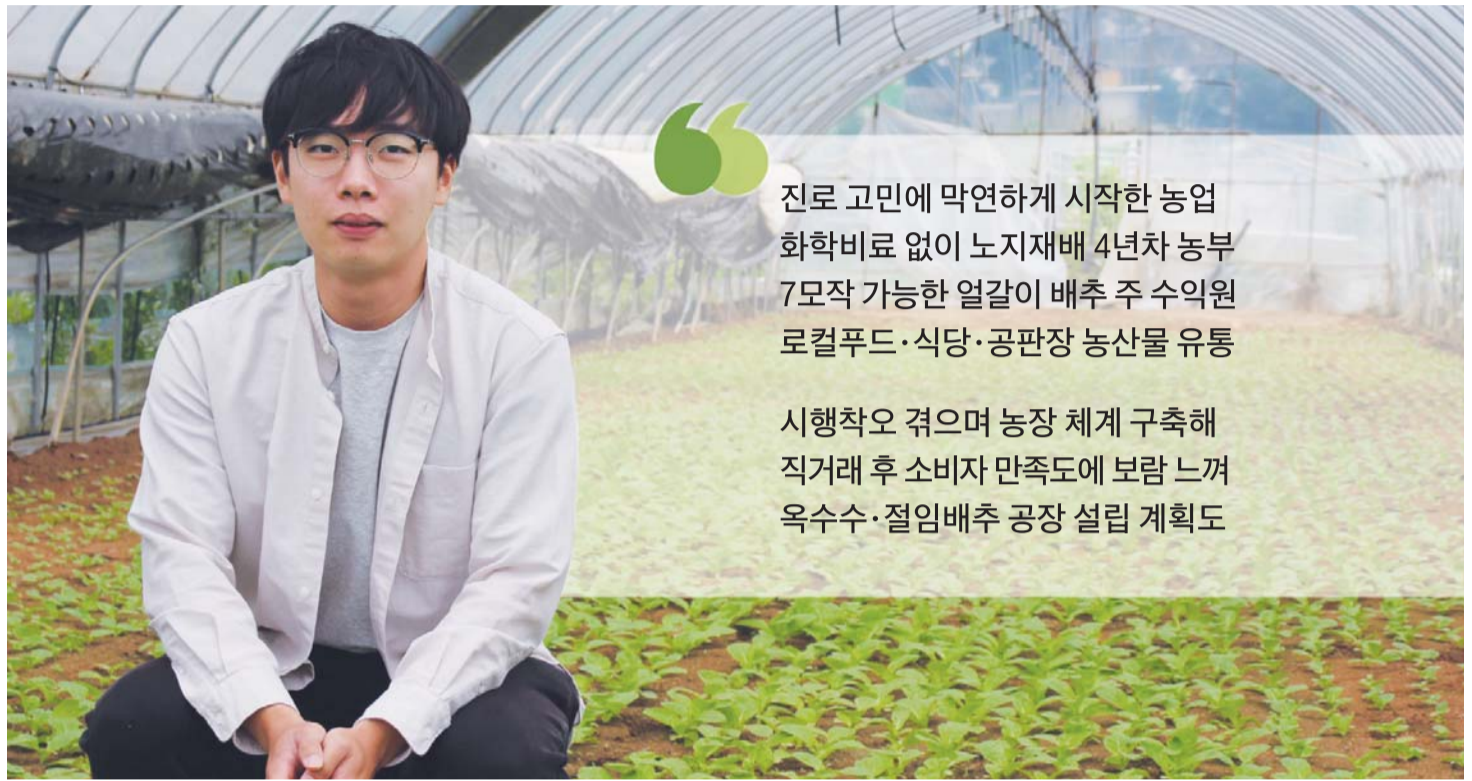
## ◆막연하게 시작한 농사, 시설·노지 재배 청년농부로

이준규 대표는 농사에 전업으로 뛰어든 지 4년 차인 청년 농부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았고, 농사도 고양시에서 짓는다. 주말 농장으로 농업을 처음 접해본 지 3개월 만에 가능성을 보고 전업으로 뛰어 들었다. 대부분 이 대표의 부모도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는 험한 단신 홀로 농업에 뛰어 들었다.

이 대표는 기계공학도다. 농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을 선택하는 데 장점이 있었다. 웬만한 기계는 그가 고치고 그가 운영한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공익근무를 갔다. 공기업에 배정받아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았다”면서도 “조그만 사무실 안에 갇혀서 일하다 보니 평생 그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서 ‘농사를 지어보자’고 해서 막연하게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왕 하는 거 일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빨리 털고 나가기 위해 바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시작은 막연했으나 폭신티 있어 보였다. 그는 축구장 2개 넓이에서 시설·노지 재배를 하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땅이 더 건강하게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퇴비를 기반을 한 유기물 비료를 사용한다. 모종도 이 대표가 직접 키운다. 씨앗부터 육묘, 파종, 수확까지 관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이준규 등대농원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열갈이 배추 밭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다.

/박태홍 기자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를 선발해 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 있고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제도도 있다. 다만, 농지은행 제도는 고양시에는 잘 나오지 않아 이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의 주 수익원은 열갈이 배추와 김장배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열갈이배추는 1년에 6~7모작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열갈이 배추는 한 달에 한 번씩, 겨울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다”며 “열갈이 배추가 평당 아무리 못해도 10단이 나온다. 하우스 한 동에 150평 정도 된다. 한 단에 1000원만 잡아도 한 번 수확할 때마다 인건비 등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 순익이 남는다”고 했다.

김장배추는 그가 더 규모를 키우려는 채소다. 열갈이배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겨우내 김장을 위한 김장배추 농사가 시작된다. 그는 노지에서 김장배추를 키워 수확한 뒤, 배추를 절여서 직거래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잡까지 배송도 해준다. 작년에는 쏟아지는 주문에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선배 농부’에 물어 물어 ‘프로 농부’ 향해  
농업에는 유통 과정이 따라붙는다. 농부가 키운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리는 과정이 있어야 농부도 투자를 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표는 크게 3가지 루트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었다.

첫째, 로컬푸드 매장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제도는 생산자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산물을 대신 팔아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로 향하는 유통 과정을 몇 단계 줄여줬다.

이 대표는 농사 초반에는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비중을 높여 가져갔지만 이제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小) 포장을 해야 하는데, 소포장을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한 농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공급처는 식당과 공판장이다. 여러 농부에게 물어보고 과외를 받기도 하면서 공급처를 다양화했고, 직접 영업을 뛰어서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업자와 연결이 돼 판매하기도 한다. 또, 강서구농수산물시장이 인근에 있어 그 곳 공판장에 30%의 물량이 공급된다.

## ◆시행착오가 가장 큰 힘 됐다

열갈이배추를 딸 때가 되면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꾼들을 태우고 밭으로 향한다. 농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열갈이를 따고 박스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할 때 그는 노지를 관리하고, 작업이 일주 되면 공급처에

납품한다.

이렇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교육도 많이 듣고, 일산 서구 쪽에 농장 크게 하시는 분한테 과외도 받았었다”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노지 재배를 (이 지역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화학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 작년에 김장배추 말고는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상추도 재배했는데, 작년에 상추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봤다”면서 “또 땅을 확인하지 않고 돌과 모래가 많은 땅을 빌렸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고 했다.

보람 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봄에는 노지에서 키운 옥수수를 다 직거래로 팔고,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직거래로 팔았다”며 “옥수수와 배추가 너무 맛있고 신선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전화가 왔다. 그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 ◆옥수수·절임배추 공장 도전

이 대표는 농사 짓기 전까지 시골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옥수수가 공공장과 절임배추 공장 설립이란 목표를 세웠다.

그는 “옥수수는 수확하고 하루이틀 지나면 당이 전분으로 바뀌어 맛이 없어진다. 수확 후 바로 냉동보관을 하면 그 맛이 유지 된다”며 “옥수수를 써서 급속 냉동하는 공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노지 재배 규모를 확대해서 절임 배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준규 등대농원 대표가 보내온 수확물 사진. 왼쪽부터 옥수수, 상추, 배추, 열갈이 수확현장.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 박인비, 선거 운동 본격 시동 /사진 뉴스스  
▲손흥민, 새 시즌 위해 출국...이달 말 토트넘 방한경기 예정

▲부산시립박물관, 특별전시 ‘수집가전’...전시기간 2주 연장  
▲e스포츠 월드컵 TL 꺾고 결승 오른 T1, ‘中 대표’ TES와 맞대결



▲축구협회,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침묵 깬 오타니, 시즌 28호포·3루타 폭발...5출루 활약 /사진 뉴스스